

# 제 2장

## 독도, 생명들의 터전

살아있는 섬 독도, 그 섬이 지켜온 자연



# 그들이 지켜낸, 독도의 생태계



출처: 유튜브

“지켜낸 자연, 그 안에 흐르는 생명”

지금의 독도는  
다양한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아 숨 쉬는 섬입니다.

강치, 갯가리개, 해조류, 해양 미생물까지—  
사람의 손길과 보호 아래  
생태계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연은 기억합니다. 누가 이 섬을 지켜왔는지를.”



## 독도의 생명들

### — 바다와 땅 위의 존재들

#### “그 섬에 깃든 생명들”

독도는 단지 돌섬이 아닙니다.

바다 아래부터 땅 위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독도엔 약 80여 종의 해조류와 100여 종의 조류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 아래에는 해조류 숲 속에서 문어, 전복, 성게, 해삼이 숨 쉬고,  
따뜻한 난류와 찬 한류가 만나며 다양한 어종을 품습니다.

땅 위에는 갯갈매기, 바다제비, 습새 등  
독도에만 머무는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매년 이 섬으로 돌아와 삶을 이어갑니다.

특히 '갯갈매기'는 독도를 주요 번식지로 삼고 있으며,  
해조류는 바다 속 생태계 균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 해양 생태계

### —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

### “물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독도”

수심 깊은 독도 바다엔 문어, 전복, 해삼 같은 해양 생물부터 고래류, 해양 미세 생물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독도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학문적 가치 또한 매우 큽니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곳엔 강치(바다사자)의 흔적과, 해조류 숲, 연산호 군락 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강치는 일제강점기 무분별한 남획으로 사라졌지만, 그 존재는 지금도 우리에게 보존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 육상 생태계

— 보이기에 더 아름답고 귀한 세계  
“작은 땅 위에도, 생명은 깃든다”

독도의 육지는 작고 험한 바위섬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조용히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갯이갈매기, 바다제비, 습새 등 철새들이 독도를 찾아와 동지를 텃니다.  
독도는 이들에게 한 해 중 유일한 번식지가 되어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식물들 또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삶을 이어갑니다.  
섬기린초, 갯제비쑥, 섬초롱꽃은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내려  
강한 생명력으로 독도의 풍경을 채웁니다.

독도의 육상 생태계는 비록 넓지는 않지만, 해양과 연결된 중요한 생물학적 순환의 일부입니다.  
육상에 사는 새들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식물은 토양을 잡아주어 섬의 지형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태계는 국제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이미지

## 생태계와 인간 — 공존을 위한 약속 “보존이 곧 기억입니다”

독도의 생태계는 오랜 시간 인간의 배려와 지킴 속에 살아왔습니다.  
개발이 아닌 보존의 섬, 우리가 지켜야 할 작은 자연의 영토입니다.

바다 아래의 해양 생물부터  
육지 위 철새와 식물, 곤충들까지—  
생명이 어우러져 살아 숨 쉬는 공간, 독도.

그리고 그 곁에는  
그 생태계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조심스럽게 공존해온  
해녀, 연구자, 경비대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영토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 있는 기억’이 된 자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독도는 그렇게 숨 쉬고 있습니다.

